

七月十三日

釋王寺은 지一週日이 되었다。그 동안 낮잠이 없고 雜誌편이 읽히여졌다。佛敎를 읽으니 人生問題「向上」을 읽으니 修養問題「如是」는 卷頭에 如是如是라 하였스니 如是가 무슨 如是인지 읽어도 알만호른다。[キン]를 읽다가는 岡田漫齋에 입을 썩었다。

七月二十三日

아침에 일찍이 元山가다。婁氏女高압을 지내 누락니 맛참았던 愛鳥家가 새콩을 消毒하느라고 陽地에 내여 두었는 것이다。철업는 어린 아이들이 새집을 열어서 재쳐서 갖췄는 새들은 婁女高압 鬚은 속속으로 날나갔다。조금 있다가 主人이나 와서 아회를 치며 야단을 치더니 기인간지스대애다 새籠을 매고 그속에다가 모이를 너허 아가시어나 무사이에다가 날게 달아

둔다。날너갔는 새들은 아무疑心업시 한마리씩 두마리씩 籠속으로 들어가서 모이를 먹는다 主人은 이것을 가만히 내려서 門을 다쳤다。나는 이것을 보고 도망간 새장은 法을 배우고 또한 執着性이란 있던 것임을 알았다。第三者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籠속에서 苦生하든 새가 千載一遇의 好機會 있어 大空에 나간 以上에야 다시 돌아올 理萬無할 것지만은 事實이에 새를 아음을 보니 執着力이란 무서운 것인 듯하다。人生이 이 苦를 解脫치 못할은 이 執着力의 所致인 가 싶다。



八公山의 銀海寺

八公山子

八公山의 銀海寺 銀海寺의 八公山 이 산이야기하는 사람 반다시 이 절을 자랑하고 이 절을 생각하면 이산을 聯想안 할 수 없다。

慶尙道中央에 높이 솟은 八公山 그 支脈을 내려서 여들고 올에 盤踞하야 고을 사람들 의 崇仰의 標的이 되어 있고 그 扶輿清淑한 靈氣는 八祖師를 成就輩出하고도 依然히 磅礪不絶하야 慈母가 幼子를 抱擁하고 잇듯이 高요히 規度整肅히 누어 잇는 銀海寺一圓을 안고 있다。

八公山中허리에는 언제던지 파란실안개 霧실 안개가 보이며 피어 오른다。실안개사이로 空中樓閣이 보이는 암자 절들이 잇다。雲浮庵 白雲庵은 이리하야 命名된 것이다。雲浮는 銀海의 子末寺이오 白雲은 銀海의 孫末寺이다。대대로 부는 바람 새파란 실안개 안고 스스로 골짜기로 나려 銀海君을 차자간다。俄而오 친구를 이

볼삼아 銀海一幅의 고요히 잠자고 잇는 것을 은사히 볼 수 있다。

東臺老松우으로 써오르는 一輪紅 杲々히 풍실호 이며서 南山絶壁에 걸닐 때는 백가지 잡새가 한가지 옥을 노코 이 幽雅清淑하고 奇絶比絶한 風景을 讚美合奏하면 어느듯 銀海一帶를 덮어 끼여 잇는 안개는 다 사라지고 痕跡도 없다。

銀海寺의 子末寺 孫末寺 八公山안에만 열두암자가 잇나니 큰 절 큰 법당으로 불어 巳時 鍾소리가 울어나와 銀海公山을 울일때 미리기다리고 잇는 열두암자 부전스님들 一齊히 拍子를 마추어「마지씨」를 친다 저근듯 鍾소래 除音을 거두자 木鐸소래를 비롯하야 따라서 唱佛精進소래「인도소래」 잘하는 公山中들의 盤帶를 거쳐서 嚙曉히 떠올나 구슬을기 들여올때 銀海寺를 차저오는 손님 두손을 들면서 合掌하고 머리를 가만이 숙이고 깊이 / 歸依